

弘報室 : (02)
6050-3602~5

이 자료는 11/27(金)자 朝刊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 인터넷 등은 11/26(木) 11:00부터

* 문의 : 물류혁신팀 임재국 팀장(6050-1440), 김대규 차장(6050-1443)

물류전문가 절반 “내년 물류시장 올해 수준” ... 택배·항공운송 선전

- 물류전문가 대상 조사 ... “2016 물류시장 경기 올해수준 유지” 49%, “올해보다 나아질 것 ” 30%
- 분야별로는 ‘택배업’ 가장 선전 ... “전자상거래, TV홈쇼핑 시장의 확대, 해외직구 증가 탓”
- 내년 물류시장 주요이슈는 ‘선진국 경기변동’(36%), ‘유가변동’(34%), ‘환율변동’(32%) 순

내년 물류시장 경기는 올해와 비슷하거나 다소 나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물류 분야별로는 택배업과 항공운송분야가 가장 선전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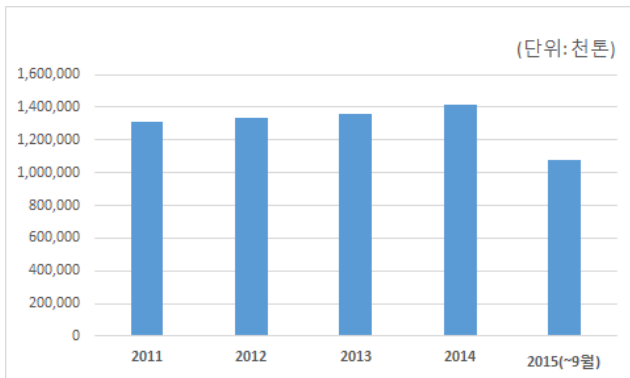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최근 기업 물류담당 임원, 학계·연구소 전문가 등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 물류시장 평가 및 2016년 전망 조사’에 따르면, 내년 물류경기 전망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9.0%가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다. ‘올해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30.0%였고 ‘위축될 것’이라는 응답은 21.0%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2015년 물류시장 평가에 대해선 ‘성장이 다소 둔화됐다’는 응답이 54.0%였고, ‘성장세 유지’라는 답변이 24.0%,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응답이 18.0%였다. 물류시장을 둘러싼 대내외 경영여건 변화에 대해선 응답자 절반이 ‘전년보다 악화됐다’(50.0%)고 답한 가운데 ‘호전됐다’는 응답은 8.0%에 그쳤다. <변화 없음 4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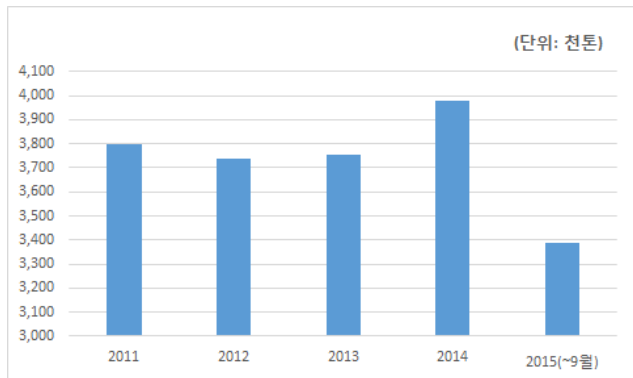
올해 물류시장의 고전은 물류경기를 추정할 수 있는 항만물동량 추이에서 확인된다. 항만물동량은 2012년 21%, 2013년 1.5%에 이어 지난해에는 4.2% 깜짝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올해 9월까지 누적 항만물동량은 전년 동기대비 -8.4%를 기록했다. 항공물동량도 지난해 6.0%의 성장률을 보였으나 올해 9월까지 전년 동기대비 -3.2%에 그치고 있다.

대한상회의는 “올해 주요 교역상대국인 중국의 경기둔화와 내수부진이 수출입 물량감소로 이어지 물류업계가 어려움에 처했다”며 “내년에도 유가안정, 세계경기 회복 기대감과 같은 긍정적인 요인도 있으나 원자재를 포함한 세계 수출입 물동량 감소가 지속되며 물류경기가 쉽게 회복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림1〉 항만물동량 추이, *출처:SP-IDC)



〈그림2〉 항공물동량 추이, *출처:한국공항공사)



내년 가장 선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물류분야로는 ‘택배’(72.0%)가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항공운송’(42.0%), ‘3PL’(35.0%), 창고·보관(33.0%), ‘육상화물운송’(21.0%), ‘복합운송주선’(19.0%), ‘해상화물운송’(19.0%) 등이 차례로 꼽혔다.

대한상회의는 “택배업은 홈쇼핑과 같은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과 새로운 유통채널 등장, 해외직구 증가 등으로 호황이 예상된다. 항공운송도 직구·역직구의 성장으로 선전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수출입경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해상·육상화물운송은 내년도에도 힘든 시기를 보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학계·전문가를 제외한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내년 채용계획을 묻자 ‘올해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기업이 45.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채용계획이 없다’는 기업이 32.0%, ‘늘리겠다’ 18.0%, ‘줄이겠다’ 5.0%로 집계됐다.

내년 투자계획에 대해서도 ‘투자 계획이 없다’(47.0%)는 기업이 가장 많은 가운데 ‘올해보

다 늘릴 것'(25.0%), '올해 투자규모를 유지하겠다'(24.0%), '올해보다 줄일 것'(4.0%) 순으로 조사됐다.

2016년 물류시장에 영향을 미칠 주요 이슈로는 '미국·유럽 등 주요 선진국의 경기 변동'(36.0%)을 첫 손에 꼽았다. 이어 '유가 변동'(34.0%), '환율 변동'(32.0%), '소비 등 국내 경기 회복세'(30.0%), '물류기업간 경쟁심화'(24.0%), '해외 신흥국의 성장률'(24.0%), '물류부문 규제'(16.0%) 등을 꼽았다. <복수응답>

물류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노력할 과제로는 '새로운 유통·물류트렌드 대응능력'(46.0%),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능력'(38.0%), '중국, 베트남 등 신규해외시장 진출'(33.0%)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기존 고객과의 안정적 거래관계 확립' 31.0%, 'M&A를 통한 경쟁력 확보' 15.0%, '물류인프라 투자' 15.0%, '전문인력양성, 현장인력 확보 등 인적자원관리' 12.0%, '빅데이터 활용능력' 11.0%, 복수응답>

물류시장 성장을 위해 필요한 정부정책으로는 '중소·중견 물류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52.0%), '물류산업 규제 완화'(48.0%), '해외시장 진출 지원'(34.0%), '3PL 활성화 방안 마련'(25.0%), '공항·항만 등 물류인프라 확충'(18.0%), '물류인력 양성 지원'(13.0%) 등을 제시했다. <복수응답>

대한상회의는 “국내 물류기업이 재도약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최근 물류서비스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온라인 유통과 해외직구·역직구시장을 공략하고,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최신 물류기술을 도입해 물류효율화에 나서야 한다”며 “아울러 높은 성장이 예상되는 아세안, 중국 등 신흥 해외물류시장에 적극 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사개요>

- 조사대상 : 모집단 198명
- 표본추출방식 : 전수조사
- 응답수 : 100 (대기업 23, 중소기업 59, 학계 및 연구소 18)
- 조사기간 : 10/21~11/6
- 조사방법 : 전화 및 FAX 조사